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2
2025.11.17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2035년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EU-영국 ETS 연계 공식 협상 개시
- 싱가포르·Verra·GS, Article 6.2 크레딧팅 프로토콜 공식 발표
- 브라질, 스위스·싱가포르와 Article 6 MoU 추진
- 인도네시아, COP30 앞두고 영국·ICVCM과 협력 강화
- 인니-노르웨이, 제6.2조 기반 재생에너지 감축거래 협력 체결
- ICAO, CORSIA에 CCS·CDR 공식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2035년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NDC)와 함께 제4차 배출권 거래제 (ETS) 할당계획을 확정함.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

제4차 계획기간 (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경우, 총 배출 허용량은 17% 줄이고,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 (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매년 높아져 2030년 50%까지, 비발전 부문은 15%까지 올라가지만, 탄소누출 우려 업종 (수출 중심 산업)은 100% 무상 할당을 유지

***MSR (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 안정화 제도)**

: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



EU - 영국 ETS 연계 공식 협상 개시

EU 이사회가 EU와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ETS) 연계를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승인함.

양측의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시, 탄소시장 통합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 및 CBAM 상호 면제 가능성을 통한 무역 장벽 완화가 기대

협상은 전력, 산업, 항공, 해운 등 EU ETS의 기존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 추가 부문 확장도 예상

영국의 EU CBAM 면제 시점, EU 사법재판소의 권한 인정 문제, EU 규정과의 동적 정합성 유지 등은 영국 내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 협상 난항이 우려되나, EU와 영국 모두 기후협력 확대 및 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신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Verra·GS, Article 6.2 크레딧팅 프로토콜 공식 발표

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 (NCCS)가 Verra 및 Gold Standard와 함께 Article 6.2 크레딧팅 프로토콜을 발표

각국 정부가 기존의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동 프로토콜은 승인, 최초 이전, 소각, 상응조정 등 제6.2조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표준화해 국가별 중복 시스템을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컴플라이언스 시장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목적

양자 협정 시 행정·협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 크레딧팅 프로그램 (ICP)을 Article 6 협력의 공통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시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유의미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

이번 프로토콜은 향후 관심을 보이는 정부, 시장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



브라질, 스위스·싱가포르와 Article 6 MoU 추진

브라질이 COP30을 앞두고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탄소거래 협력을 위해 스위스, 싱가포르와 양해각서 (MoU)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과도 긴밀히 접촉 중이라 밝힘.

이는 브라질의 첫 Article 6 양자협력 체계가 될 전망으로, 그동안 Article 6 역량 부족 비판을 받아온 브라질은 ITMO 발행 규칙 마련과 공개 협의 준비 등 제도 정비를 진행 중

브라질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확보되는 2026년 이후 ITMO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제6.4조 메커니즘 참여 요건 문서를 제출하며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공식화함.



인도네시아, COP30 앞두고 영국·ICVCM과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가 COP30을 앞두고 자발적 탄소시장 재활성화에 본격 진입함.

산림부는 ICVCM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청렴위원회) 및 영국 정부와 각각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며, 국제 신뢰도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임.

인도네시아는 4년간 중단됐던 국제 탄소거래를 재개했으며, 자국의 탄소크레딧을 ICVCM의 CCP (핵심탄소원칙) 기준에 맞출 것이라 밝힘.

COP30에서는 약 9천만 톤 규모의 탄소크레딧을 보유한 40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산림·에너지·폐기물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해 국제 바이어 유치를 강화

또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대통령령 제110호(2025)를 통해 국가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경제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 이는 2050년까지 최대 134억 톤의 거래가능한 탄소거래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탄소시장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



인니 - 노르웨이, 제 6.2조 기반 재생에너지 감축거래 협력 체결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가 COP30에서 ‘상호 의향표명서’를 체결하며 파리협정 제6.2조 기반의 재생에너지 탄소크레딧 거래 협력을 공식화함.

노르웨이는 공적 기후재원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국외감축실적 (ITMO,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확보하는 구조

초기 파이프라인은 부유식 태양광 등으로 10년간 약 1,200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거래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해당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를 다수 유치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노르웨이 탄소기금은 이미 8억 달러 (약 1.1조 원)가 확보된 상태로 15억 달러 (약 2.2조 원)까지 확대될 예정

양국은 COP30에서 이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구매계약 (MOPA)을 체결할 계획



ICAO, CORSIA에 CCS·CDR 공식 도입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처음으로 CORSIA 제도에서 탄소 포집·저장 (CCS), 공학적 탄소 제거 (CDR) 방법론의 사용을 공식 승인함.

Verra, Gold Standard, Isometric 등 주요 자발적 탄소 표준도 Phase 1과 Phase 2에 걸쳐 잇따라 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항공 상쇄 시장이 감축 중심에서 제거 중심으로 확장

다만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식의 불승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정 쿡스토브, REDD+ 일부 유형 등은 제외되며, 낮은 품질의 감축 방법론은 계속해서 배제되는 추세

팬데믹 이후 항공 부문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해 항공사의 상쇄 의무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ICAO는 2024~2035년 동안 최대 15억 톤의 누적 상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